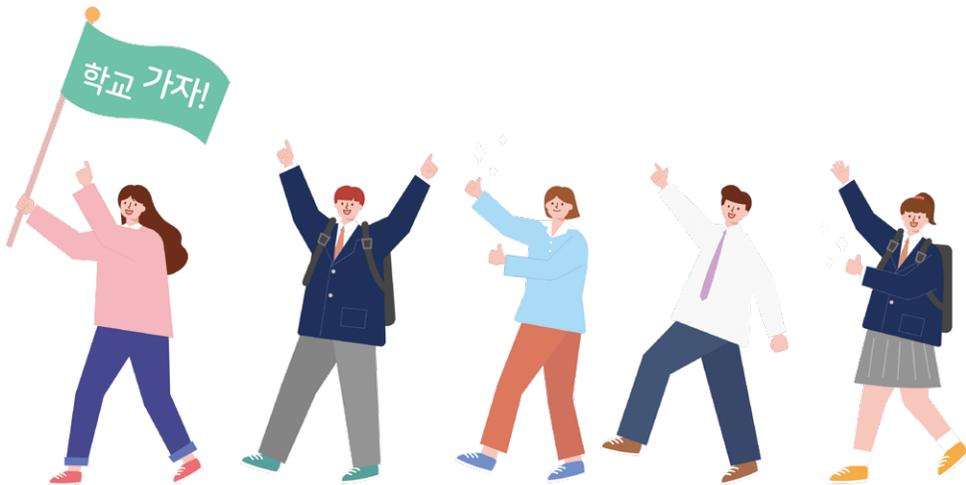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위한 안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National Cancer Survivorship Center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위한 안내

기획: 중앙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개발: 김영애, 박현진, 이연승(국립암센터)
발행처: 보건복지부지정 중앙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31-920-2965
버전, 발행일: ver 2.0, 2023년 4월



목차

I. 학교복귀의 중요성	04
II.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소개	05
III. 가정에서 학교복귀 준비하기 - 부모 및 보호자 편	08
IV. 가정에서 학교복귀 준비하기 - 형제자매 편	21
V. 학교에서 학교복귀 준비하기 - 교사 편	23
VI. 상황별 대처방법	37
VII. 부록	48
VIII. 출처	51

I. 학교복귀의 중요성

소아청소년암 치료 향상으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경우, 개개인의 진료 및 치료 일정에 따라 치료 종료 이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학교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교육기회는 성인기 이후의 직업, 소득, 결혼 등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성과를 달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아동 청소년의 인지 및 정서 발달, 학업 성취, 대학 진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의 장을 제공하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료 이후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는 병원학교(원격수업)에서 원격학교로 복귀하고 학교복귀 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자 부딪히며 고민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동시에 부모, 담당교사, 학교친구들도 다양한 어려움(건강, 교사·친구 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고민하는 문제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해결 방법을 같이 의논하고, 관심 있게 들어준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예요.
무엇보다 학교복귀 할 때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해요.
치료과정을 씩씩하게 이겨낸 만큼
복귀도 씩씩하게 해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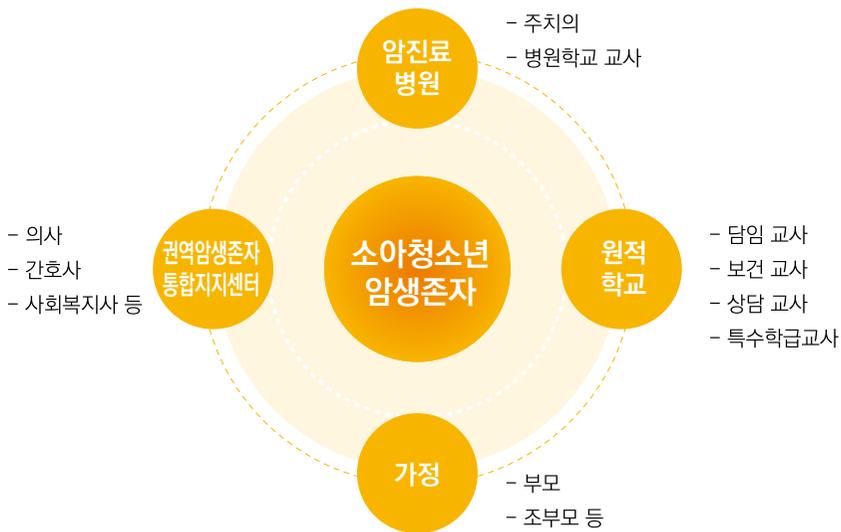


II.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소개

1.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은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와 부모(보호자)가 주치의, 병원학교 교사(원격수업 담당), 원격학교 교사(담당, 보건, 상담, 특수 등)와 함께 학교복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안내,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누구인가요?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에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 (보호자), 의료진, 원격학교 교사 등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학교 복귀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암 치료가 끝난 만 7세-18세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중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①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학생
- ② 부모와 주치의 모두 학교복귀를 동의한 경우

* 장애 등급을 받아 특수학교 재학 예정자이거나 재학생이어도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제외 기준

- ① 인지 및 언어능력 발달 정도가 프로그램 활동지를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 치료 중의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는 “☞ 부록. 관련 기관 및 사이트” 정보 참고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부모 또는 보호자
-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참여 여부는 보호자와 협의 후 진행
- 의료진(주치의, 권역센터 의사)
- 원적학교 교사(담임, 보건, 상담, 특수 등) 중 1인 이상
- 그 외: 병원학교 교사 또는 원격수업 담임도 참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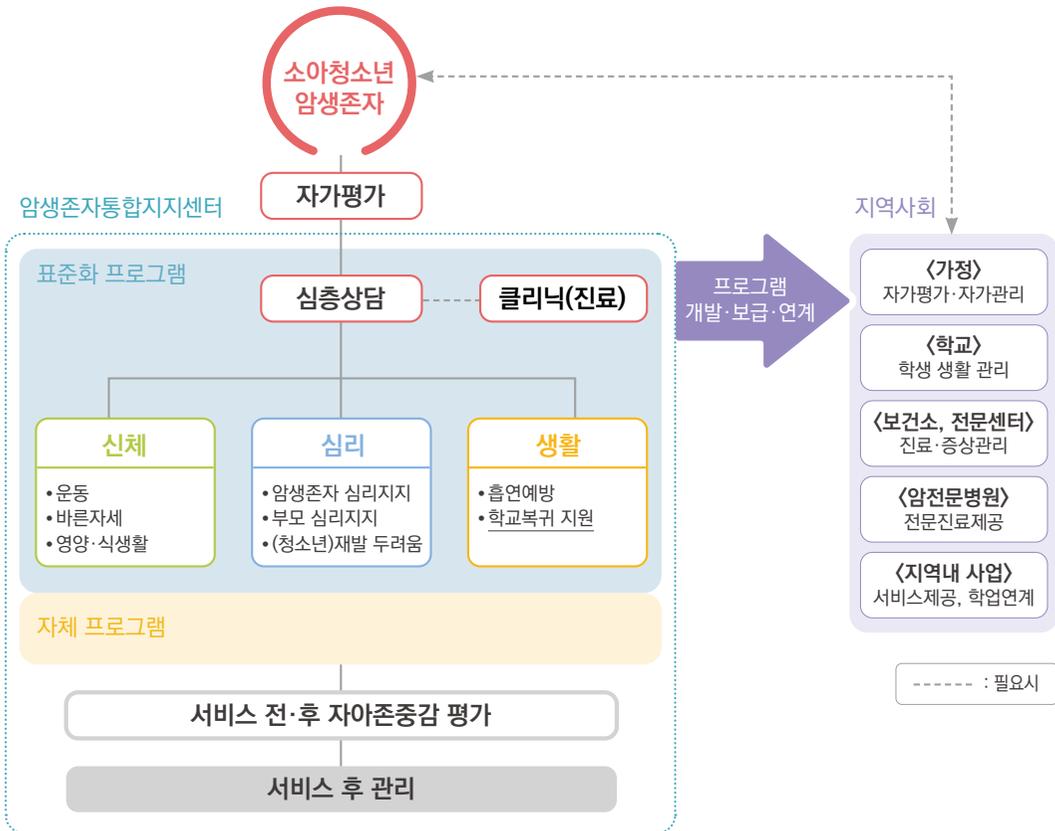
3.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치료로 인한 공백 기간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원적학교 교사, 학교친구, 부모(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관계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4.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자가평가 후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절차 〉



〈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과정 〉

*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구분	단계별 기능	주요 활동
학교 복귀 전	1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설명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부모)의 학교복귀 의향 확인 - 주치의 암치료요약지(학교복귀) 교부 - 참여자별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동의서 교부 및 취합 - 참여자별 학교복귀 준비 점검목록 교부 및 취합 - 프로그램 운영 일정 안내
	2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복귀 사례관리 계획서(또는 초기 면담 기록지) 작성 - 참여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교육용 파워포인트, 소책자 등을 활용하여 교육 시행 -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학교로 복귀하는 시점

학교 복귀 후	3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하기 일주일 전 유선으로 모니터링 시행 - 학교복귀 후 8주 이내에 학교생활 모니터링 조사 시행
	4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종료시점(7월말, 12월말)에 암생존자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후 평가 실시 - 종결 및 지속 여부 결정

5.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국립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3곳(경남, 제주, 충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의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2023년 4월)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소아청소년팀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국립대학교병원	055-750-9038
제주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소아청소년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제주대학교병원	064-717-2353 064-717-1964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소아청소년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043-269-7690
국립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실 소아청소년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031-920-1243 031-920-1240

III. 가정에서 학교복귀 준비하기 - 부모 및 보호자편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는 힘든 항암 치료 중이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학교와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학교복귀가 가까워져 올수록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교생활을 시작한 자녀는 주위의 도움을 받거나 때로는 무관심 속에서 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자녀가 겪게 되는 고민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안정적이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와 부모(보호자) 사이에 열린 대화를 꾸준히 해야 하며, 주의 깊게 자녀의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 학교복귀를 위한 사전 점검 목록을 체크해보세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저학년용)

●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학교생활에서 바라는 것, 조심해야 할 것 등을 미리 알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확인 하는 것도 좋아요!

문항	내용	
1	치료를 인해 생긴 내 몸의 변화를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1교시 <input type="checkbox"/> 2교시 <input type="checkbox"/> 3교시 <input type="checkbox"/> 4교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내가 아팠던 것을 친구들이 알아도 되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친구들이 알아도 된다면, 내가 아팠던 것에 대해 누가 설명하면 좋을까요? <input type="checkbox"/> 학생자신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담임교사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3-2	친구들이 아는 것이 싫다면, 친구가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가요?	
4	학교에서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우선순위 번호쓰기) () 부모 () 담임교사 () 친구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기타 :	
6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사이좋게 지내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7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과활동(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도덕 등)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8	학교생활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표시해 보세요. (우선순위 3개 번호 쓰기) () 공부 () 선생님과 대화 () 친구 사귀기 () 놀이 () 체험학습 () 운동회, 학예회 등 교내 활동 () 기타	
9	학교생활에 관하여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우 걱정함 <input type="checkbox"/> 조금 걱정함 <input type="checkbox"/> 거의 걱정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전혀 걱정하지 않음	
10	학교생활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11	학교생활이 얼마나 즐거울 것 같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㉞ 학교복귀를 위한 사전 점검 목록을 체크해보세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고학년용)

-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학교생활에서 바라는 것, 조심해야 할 것 등을 미리 알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이야기 하면서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문항	내용	
1	치료로 인해 생긴 내 몸의 변화를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현재 나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건강하지 못한 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3	친구들이 내 병에 대해 알아도 되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친구들이 알아도 된다면, 내 병에 대해 누가 설명하면 좋을까요? <input type="checkbox"/> 학생자신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담임교사 <input type="checkbox"/> 권역센터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3-2	친구들이 아는 것이 싫다면, 친구가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가요?	
4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우선순위 번호쓰기) () 부모 () 담임교사 () 친구 () 권역센터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 기타 :	
6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사이좋게 지내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7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과활동(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도덕 등)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8	학교생활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표시해 보세요. (우선순위 3개 번호 쓰기) () 공부 () 선생님과 대화 () 친구 사귀기 () 놀이 () 체험학습 () 운동회, 학예회 등 교내 활동 () 기타	
9	학교생활에 관하여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우 걱정함 <input type="checkbox"/> 조금 걱정함 <input type="checkbox"/> 거의 걱정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전혀 걱정하지 않음	
10	학교생활에 관해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11	학교생활이 얼마나 즐거울 것 같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 학교복귀를 위한 사전 점검 목록을 체크해보세요. (부모 및 보호자)

- 자녀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기대하는 점, 조심할 점 등을 미리 알고 자녀가 학교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문항	내용	
1	자녀의 진단명과 치료과정, 치료일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자녀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일을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현재 자녀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건강하지 못한 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4	학교 친구들이 자녀의 병에 대해 아는 것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도움이 된다면, 자녀의 병에 대해 궁금해 하는 친구에게 누가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input type="checkbox"/> 학생자신 <input type="checkbox"/> 담임교사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권역센터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5	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와 의논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담임교사 <input type="checkbox"/> 권역센터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6	자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자녀의 학습수행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8	학교복귀 하기 전, 자녀와 함께 학교 방문 계획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학교생활에 관하여 자녀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우 걱정함 <input type="checkbox"/> 조금 걱정함 <input type="checkbox"/> 거의 걱정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전혀 걱정하지 않음	
10	자녀의 학교생활 중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 3개 번호 쓰기) () 공부 () 선생님과 대화 () 친구 사귀기 () 놀이 () 체험학습 () 운동회, 학예회 등 교내 활동 () 기타	
11	학교생활에 관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12	자녀가 학교생활을 얼마나 즐거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13	담임교사와 학교에서 자녀에게 어떤 점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나요?(우선순위 번호 쓰기) () 학습지도 () 생활습관지도(위생, 식사, 결석, 안전 등) () 교우관계 () 상담(보건, 상담 교사 등) () 체육활동 () 기타:	

☑ 주치의와 함께 학교복귀를 위한 사전 점검 목록을 체크해보세요.

● 주치의와 함께 학교복귀 준비 점검목록을 작성해보세요!

- 암치료요약지(학교복귀 관련 사항)에는 자녀의 요약된 병력상태와 학교복귀 가능 여부, 학교복귀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문항이 있습니다. 부모(보호자)는 프로그램 참여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여 학교복귀와 관련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암치료요약지 활용)

■ 학교복귀 관련 사항 *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만 작성

진단명	
진단일	
치료종결일자	
치료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내용 : 예시) 항암 치료로 인하여 빠진 모발이 자라고 있는 중임, 골밀도 감소	
향후 진료 일정	예시) F/U 계획(6주 간격 외래 검사, 혈액검사, MRI 일정, 치료 종료 시점 등)
학교복귀 확인사항	
1) 학교복귀 찬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의료진 <input type="checkbox"/> 부모(보호자) <input type="checkbox"/> 암생존자
2) 학교복귀 예정 시점	년 월 이후
학교복귀 시 주의사항 ※ 의사의 권고사항 및 권역센터 전담인력의 의견을 작성하세요.	
1) 신체건강 및 활동	현재 건강 문제로 인한 교내 학습활동 및 체육활동에 지장 (있음, 없음). 있을 경우 (내용예시: 공놀이, 달리기 등 참여 가능하나 오래 달릴 경우 힘 들어할 수 있음)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운동이나 놀이에 지장 (있음, 없음)
2) 학업	수업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지(1교시, 2교시 등)
3) 영양식사	예시) 급식을 먹어도 됨, 식중독이 위험이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음
4) 정서	예시) 우울, 불안 등이 심해짐
5) 기타	신체 및 영양식사 외 학교복귀 시 주의해야 하는 추가사항을 기재 예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참석 등 교외 활동이 가능한가? 예시) 청소 등 학교에서 피해야 할 활동이 있는가?

☑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저학년용)**

- 학교로 돌아간 후 8주 이내에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나의 건강상태 변화, 교과 활동, 학교생활 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문항	내용	
건강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1교시 <input type="checkbox"/> 2교시 <input type="checkbox"/> 3교시 <input type="checkbox"/> 4교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해 상담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상담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일주일에 한 번 <input type="checkbox"/> 이주일에 한 번 <input type="checkbox"/> 한 달에 한 번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교과 활동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학교 수업과 관련된 자료(노트필기, 학습지 등) 및 학교 평가 관련 정보(평가일, 평가범위 등)를 받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학교 급식을 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육활동 시 어려운 점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유연성(스트레칭, 공, 리본 후프 체조 등) <input type="checkbox"/> 심폐지구력(줄넘기, 왕복오래달리기, 축구 등) <input type="checkbox"/>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매트운동, 뽀름, 단거리 달리기 등) <input type="checkbox"/> 평형성(평균대, 뽀름 등) <input type="checkbox"/> 근력(윗몸말아올리기, 자전거타기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체험활동, 수학여행 등의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현재 학교생활이 얼마나 즐거운가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가장 재미있는 과목과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무엇인가요?	
학교 친구	친구들이 내가 아픈 것에 대해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친구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SNS, 전화, 방문, 편지 등)을 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을까요?	

④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고학년용)

- 학교로 돌아간 후 8주 이내에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건강상태 변화, 교과활동, 학교생활 등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문항	내용		
건강	현재 나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건강하지 못한 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해 상담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상담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일주일에 한 번 <input type="checkbox"/> 이주일에 한 번 <input type="checkbox"/> 한 달에 한 번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교과 활동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학교 수업과 관련된 자료(노트필기, 학습지 등) 및 학교 평가 관련 정보(평가일, 평가범위 등)를 받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학교 급식을 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육활동 시 어려운 점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무용 등) <input type="checkbox"/>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등) <input type="checkbox"/>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검도, 야구 등) <input type="checkbox"/> 평형성(평행봉, 다이빙 등) <input type="checkbox"/> 근력(팔굽혀펴기, 유도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체험활동, 수학여행 등의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현재 학교생활이 얼마나 즐거운가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가장 재미있는 과목과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이 나의 질병에 대해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학교 친구	친구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SNS, 전화, 방문, 편지 등)을 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을까요?		

☑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부모 및 보호자)

- 학교로 돌아간 후 8주 이내에 자녀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녀의 건강상태 변화, 교과활동, 학교생활 등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문항	내용		
1	현재 가정에서 학생을 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input type="checkbox"/>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2	현재 자녀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건강하지 못한 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3	담임교사, 상담교사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해 상담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담임교사가 자녀의 상황을 배려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학교생활에 관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6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7	자녀가 학교생활을 얼마나 즐거워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8	학교복귀 후 건강 관련 응급상황이 있었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9	자녀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10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학교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1. 학교복귀에 대해 부모(보호자)가 느끼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학교복귀 여부 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힘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죄책감이 들며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됩니다.
- 치료/진료로 인한 학교생활 공백 적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자녀가 학교에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 진단과 치료 이후 자녀의 성격 변화 대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학교 친구와의 단절, 외모 변화에 따른 놀림, 질병에 대한 학교 친구들의 이해 부족 등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2. 학교복귀를 위해 부모(보호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 자녀와 함께 학교복귀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지속적인 격려와 조언을 통해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 학교에 다니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와 대처 방법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장·단점 등을 기록하여 강점은 칭찬으로 발전시키고, 고칠 점은 수시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 자녀에 대한 특별대우를 학교에 요청하거나, 과잉보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학습상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 치료 전에 배웠던 교과 진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 치료 중 병원학교나 원격수업 기관의 학습내용과 평가결과를 학교 교사에게 전달합니다.
 - 공부한 내용이나 준비물에 대한 지시 사항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노트와 메모장에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 집중력이 감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책상에 앉기보다는 공부의 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 학교 친구들과 방과 후에 만나서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학교 친구들 1~2명(소수인원)을 정해서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미술이나 사진 찍기 등 흥미로운 것을 배워 친구들 앞에서 보여줄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가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생활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학교복귀를 위해 교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학교 선생님들과의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학교복귀 전에 담임교사 및 다른 교과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와 부모의 학교복귀에 대한 생각 (기대, 걱정 등)
 - 자녀의 진단명, 건강상태
 - 자녀의 학적 관리에 필요한 서류
 - 학교 친구에게 질병 공개 여부
 - 응급, 의료적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최소 2개 이상)
 -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보건실 이용 방법
 - 수업 참여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결석, 과제, 건강문제 등에 대해 교사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이메일, 전화 등)
 - 교실 내 자리, 사물함 배치 및 도우미 친구 선정 여부 등

● **교과서를 넣을 수 있는 학급 내 사물함을 배치해주세요.**

- 책가방이나 준비물이 무거울 때, 교과서를 2세트 준비하여 1세트는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 **학급 안에서의 자리 배치를 고려해주세요.**

- 청력, 시력, 주의집중 문제를 고려하여 자녀를 앞자리로 배치할 수 있는지 의논합니다.
- 교사와 자리 배치 관련하여 논의하기 전에 자녀와의 의논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이용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업 종료 5분 전이나 필요시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배려해 줍니다.

● **보조기구 사용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 학교 환경 지원에 관해 자녀와 가족, 학교 측에서 각각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논합니다. 1층 교실을 배정한다거나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여부, 책상 옆에 안전바 설치하기, 실내에서 휠체어 사용 등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휴식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 자녀가 피로를 호소하거나 기력이 약한 경우 보건실에서 잠시 쉴 수 있는지 의논합니다.

● **복약 관리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 담임교사, 보건교사가 학교생활 중 자녀의 복약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의논합니다.

● **체육수업 시 자녀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업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논해주세요. 자녀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참가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결정은 자녀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시합 중에는 심판 역할주기, 달리기에서는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기 등이 있습니다.

● **협동학습과 실기평가 등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세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체화로 학생평가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학교교육 방법도 모둠과 협동학습을 중시합니다. 자녀가 협동학습에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또한, 학교에서는 학습 활동이 다소 늦는 학생들을 위해 일회성 평가보다는 기회를 다양화 하여 학생의 성취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연습이 필요한 실기 활동 등에 있어서,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에게 재평가 기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1인 1역 분담 활동으로 자존감과 책임감을 키워주세요.**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무조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학교와 사회공동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로도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존감과 책임감은 협력으로 이어져 학교복귀와 친구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 **학교급식 시 주의해야 할 음식에 관해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 자녀의 학교복귀 후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식자재 등을 구체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안내하면, 담임교사는 영양사에게 전달하여 학교급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종료 후 초기에만 별도의 조리가 필요합니다.

4. 학교복귀를 위해 자녀와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학교 친구들에게 자녀의 질병을 알리는 것은 자녀, 주치의 및 교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대부분 만성질환에 대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알려져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학교복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팠던 사실을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 좋을지, 알리지 않는 게 좋을지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결정에 맞게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녀와 함께 미리 학교를 방문해 주세요.**

- 자녀와 미리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에 대해 낯섬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 보건실, 급식실, 체육 활동 공간 등 학교 시설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동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 **학교복귀 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자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은 학교 친구와 생긴 문제들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 자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상함, 화남, 창피함 등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어야 이후에도 계속 의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릴까 봐 걱정하는 자녀에게겐 오히려 힘든 질병을 이겨내는 모습이 당당하고 더 자랑스러운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상황을 알고 있는 3명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욕상실과 자아정체감* 혼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 소아청소년암으로 인해 바뀐 일상의 변화들은 자녀의 의욕상실과 자아정체감 혼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녀는 완치 후에 다시 학교에 다니더라도 학교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의욕을 잃어서 점점 내성적으로 변하고, 때때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재촉하지 마시고 늦어도 천천히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Erikson(1968)에 의해 제안된 자아정체감(ego-identity)의 개념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건강한 성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Erikson은 이러한 정체감의 형성이 자신을 탐색하는 청소년기에 전형적으로 일어나지만, 특정 문화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속한 개인의 경우 청소년기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5. 자주하는 질문

Q1. 학교복귀는 꼭 해야 하나요?

학교복귀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학생으로서 자신의 목표의식과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학교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중요한 학업적·사회적 기술, 공동체의식, 대인관계능력 등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학교복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치료 중이거나 암 치료가 끝난 후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복귀 전 주치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학교복귀 후 체육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학생들의 학교활동 참여 정도는 학생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활동의 참여정도는 학생, 부모, 주치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다 수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참여 수준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강상의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가능한 모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배려해 준다는 의미로 학교활동에서 제외될 때 더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Q4. 학교복귀 후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내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심리지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Ⅳ. 가정에서 학교복귀 준비하기 - 형제자매 편

소아청소년암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은 일상생활과 가족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형제자매는 걱정, 두려움, 분노, 질투 등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형제자매의 성별,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위해서는 형제자매가 느끼는 어려움, 가족 구성원의 변화, 대처방안 등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형제자매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불안감, 우울함, 불안정함
- 외로움, 소외감
- 소아청소년암 환자에 대한 질투심과 원망, 이로 인한 죄책감과 혼란
- 형제자매의 소아청소년암 발병 후 새롭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부담감
- 육구의 좌절과 상실
-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공포, 두려움

2.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행동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성격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됨, 관계의 위축, 무력감, 고집이 세짐
- 형제자매의 소아청소년암 발병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며, 소아청소년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회피함
- 학교생활 부적응: 주의력 감소 및 학업 능력 저하, 교우관계 문제 발생
- 비행, 가출,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행동
- 환아에게 적대적, 공격적으로 반응함

3. 형제자매를 위해 부모(보호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형제자매가 겪는 감정과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형제자매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세요.
 - 그리고 가족 그 누구도 형제자매의 이런 감정과 생각에 대해 질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죄책감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형제자매와 이전보다 많은 이야기와 소통이 필요해요.**

- 부모님이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간호에 집중하게 된다면 형제자매는 외로움과 소외감, 질투심, 욕구의 상실감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와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요즘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지, 먹고 싶은 것은 없는지 등 소소한 일상 속의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 하루 중 일정 시간, 혹은 일주일 중 하루는 부모님이 교대로 형제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형제자매도 암 치료 과정을 함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 암 치료 과정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으면 형제자매는 소외감, 혼란, 불평등, 질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진단, 치료과정, 진단 후 변화된 가족의 모습, 가족들의 감정 등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 병명, 질병의 개념, 치료 방법, 부작용, 예후 등 의료적 지식과 간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 병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지 마세요.**

- 형제자매도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형제자매는 자신보다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간호에 집중되는 부모의 변화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의 보호와 가족의 역할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 함께 웃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 가족이 편안한 일상 대화를 주제로 웃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형제자매로 하여금 ‘밝음’과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 대화의 단절은 가족관계의 개선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으며,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암 환자의 건강한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IV. 학교에서 학교복귀 준비하기 - 교사편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는 힘든 항암 치료 중이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학교와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학교복귀가 가까워져 올수록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아청소년암에서 진정한 의미의 완치란 단순히 암세포를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 시기에 학교로의 복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복귀를 위한 사전 점검 목록을 체크해보세요. (담임교사)

- 담임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학생이 학교복귀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분	내용		
1	학생의 <u>건강</u> 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있나요? (신체활동의 제한, 음식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학생의 <u>학업</u>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교 결석 시 수업참여시간, 과제 조정, 교내외 행사 및 활동 참여 조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u>학교 시설</u> 에 대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앞자리, 화장실 등을 고려한 배치, 학교시설 사전안내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학교복귀 하는 학생의 <u>친한 친구</u> 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학교복귀 하는 학생과 <u>등하교를 같이할 수 있는 동네 친구</u> 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대처활동, 비상연락망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학생이 학교복귀 하기 전, 부모와 학생의 학교 방문 계획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㉞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담임교사)**

- 학교복귀 후 8주 이내에 학생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학생의 건강상태 변화, 교과활동, 학교생활 등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분	점검사항		
1	현재 학생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건강한 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건강하지 못한 편 <input type="checkbox"/>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2	부모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해 상담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학생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해 상담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학교 친구들이 학생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학생은 학교친구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6	학생의 학업수행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7	학생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즐거워하나요? * 0점(매우 낮음)~10점(매우 높음)으로 표시		점
8	학교친구들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가요?		
9	학교복귀 후 건강 관련 응급상황이 있었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10	학생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1	학생에게 보조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1	보조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부모와 상담 후 지원 가능한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나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나요?		

1. 학교복귀에 대해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학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학교에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 출결관리, 학습 진도, 신체활동, 영양식사, 심리지지 등
-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 학생과 학교 친구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 학생을 과잉보호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하여 학교 친구들이 차별을 느낄 때 등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2. 학교복귀를 앞둔 학생이 느끼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결석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 면역력 저하와 감기와 같은 부차적인 질병으로 결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병원 진료로 단기간 결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질병에 대한 생각, 결석으로 인한 학습 및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주위의 과잉 보호 등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 체중 증가 혹은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변화된 외모가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려주고, 학교 친구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터놓고 대화 하는 법을 학생과 함께 의논합니다.
- 탈모현상이 있습니다.
 - 두건이나 모자, 가발 착용 및 선택에 있어 학생의 의견과 기호를 먼저 묻고 존중해줍니다. 학교 복귀 전 교사와 학교 친구들이 먼저 학생의 외모에 대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치료 종료 후의 피로감은 흔한 증상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체력과 힘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여러 달이 걸립니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할 때 피곤해한다면, 학생의 의향을 묻고, 잠시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동 기능 장애, 청력 감퇴 등 학업수행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치료로 인한 학업 공백으로 학교에 복귀했을 때, 학습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규칙적인 학교생활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방사선 치료, 장기간 약물복용,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만성적인 피로와 같은 기질적 원인, 심리적

원인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 주의집중력, 기억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은 치료과정 후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 함암치료의 부작용,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어려움, 체력저하 등으로 체육시간,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학교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학교복귀를 위해 부모(보호자)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교사가 부모(보호자)와 미리 의논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 학생 및 부모와의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 인내심을 갖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와 가족, 주치의 등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부모와 학생의 건강 상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담해주세요.

- 학생과 부모의 학교복귀에 대한 생각 (기대, 걱정 등)
- 학생의 진단명, 건강상태
- 학생의 학적 관리에 필요한 서류
- 학교 친구에게 질병 공개 여부
- 응급, 의료적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최소 2개 이상)
-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보건실 이용 방법
- 수업 참여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출결관리, 과제, 건강문제 등에 대해 교사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이메일, 전화 등)
- 교실 내 자리, 사물함 배치 및 도우미 친구 선정 여부

● 교과서를 넣을 수 있는 학급 내 사물함을 배치해주세요.

- 책가방이나 준비물이 무거울 때, 교과서를 2세트 준비하여 1세트는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리 배치를 고려해주세요.

- 청력, 시력, 주의집중 문제를 고려하여 학생을 앞자리로 배치할 수 있는지 의논합니다.
- 반을 배정할 때 학생에게 누구와 같은 반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반 배정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사와 자리 배치 관련하여 논의하기 전에 학생과 의논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이용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업 종료 5분 전이나 필요시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배려해 줍니다.

● **보조기구 사용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 학교 환경 지원에 관해 학생과 가족, 학교 측에서 각각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논합니다. 1층 교실을 배정한다거나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여부, 책상 옆에 안전바 설치하기, 실내에서 휠체어 사용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휴식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 학생이 피로를 호소하고 기력이 약한 경우 보건실에서 잠시 쉴 수 있는지 의논합니다.

● **복약 관리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 담임교사, 보건교사가 학교생활 중 학생의 복약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의논합니다.

● **체육수업 시 학생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업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논해주세요.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참가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결정은 학생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시합 중에는 심판 역할하기, 달리기에서는 시간을 측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 **협동학습과 실기평가 등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세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체화로 학생평가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학교교육 방법도 모둠과 협동학습을 중시합니다. 학생이 협동학습에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또한, 학교에서는 학습 활동이 다소 늦는 학생들을 위해 일회성 평가보다는 기회를 다양화 하여 학생의 성취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연습이 필요한 실기 활동 등에 있어서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에게 재평가 기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1인 1역 분담 활동으로 자존감과 책임감을 키워주세요.**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무조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학교와 사회공동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로도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존감과 책임감은 협력으로 이어져 학교복귀와 친구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 **학교급식 시 주의해야 할 음식에 관해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 학생의 학교복귀 후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식자재 등을 구체적으로 담임교사

에게 안내하면, 담임교사는 영양사에게 전달하여 학교급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종료 후 초기에만 별도의 조리가 필요합니다.

▶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 열, 구토, 통증 호소, 부종, 멍, 코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알려야 합니다.
 - 특히 열이 있으면서 코피나 신체 부위에 멍이 증가하는 것은 학생의 혈액 수치가 상당 수준 이하로 낮아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혈소판 수치가 낮다고 주의하라는 주치의의 권고를 들었다면, 격렬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경쟁적 체육 활동(축구, 농구 등)은 삼가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학급 교육을 통해 지나친 신체 접촉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는 것도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수두나 다른 감염에 접촉하거나 학교 내에서 이런 감염이 발생했을 때 알려야 합니다.

-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 알려야 합니다.

-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알려야 합니다.

- 숨이 차거나 숨 쉬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알려야 합니다.

- 입안 통증을 느끼거나 먹고 마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알려야 합니다.

4. 학교복귀를 위해 담임교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 암 치료 종료 6개월 이후부터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감소될 수 있으며, 학생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생이 피로감을 느낄 때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 학교 보건실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학생의 상태를 고려하여 오전에만 참여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학생, 부모, 담임교사가 함께 의논하세요.
 -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학교 친구들의 개인위생관리(손씻기 등)와 같은 학급 전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학생이 급식을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세요.**

- 외부의 균에 대항하는 백혈구 수치가 적어지면 신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각종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치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액 수치가 낮아져 있을지도 모르므로,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으로 인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완전히 익힌 음식만을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급식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무심코 먹을지도 모르는 채소, 과일, 유제품(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 기타 끓이지 않은 생수나 정수기 물 등은 먹지 않게 주의 시켜야 합니다.

* 급식 관련하여 부모 및 주치의와 의논하여 주세요.

- 식사량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아예 안 먹으려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해 주세요.
 - 메스꺼움을 호소하거나 구토를 한다면 음식을 권하지 마세요.
 - 기분이 좋고 메스꺼움이 없을 때 조금씩 먹도록 해주세요.
 - 끓인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얘기해주세요.

● **학업수행관리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아래 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 잦은 결석으로 인해 온종일 출석이 불가능하더라도 학생이 학급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이나 병원에서 할 수 있게 과제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자주 상담하여 학교 수업 진도를 확인하고, 복습과 예습을 도와주며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
-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 반복적인 질문이나 문맥의 의미를 되묻는 질문을 했을 때 칭찬해 주세요.
- 이미 알려졌던 것을 잊어버렸다고 꾸짖지 말아 주세요.
- 필요한 만큼 조금씩 정보를 주세요.
-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학생이므로 하나씩 발전하는 모습과 노력을 칭찬해 주세요.
-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음을 항상 주지시켜 주세요.
- 청력, 시력에 문제가 있다면 혹은 집중하기 힘들어한다면 소음이 적은 곳이나 선생님과 가까운 곳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학습과제를 조절해 주세요.
- 수업내용을 필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수업내용을 녹음하여 들을 수 있도록 녹음기 사용을 허락해 주세요.
-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라도 수업 중 칠판의 내용을 인쇄물로 학생에게 제공해 줍니다. 학급에서 짝이나 친구가 방과 후 노트 정리 또는 복사를 도와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 학업 수행 동기 결여 관련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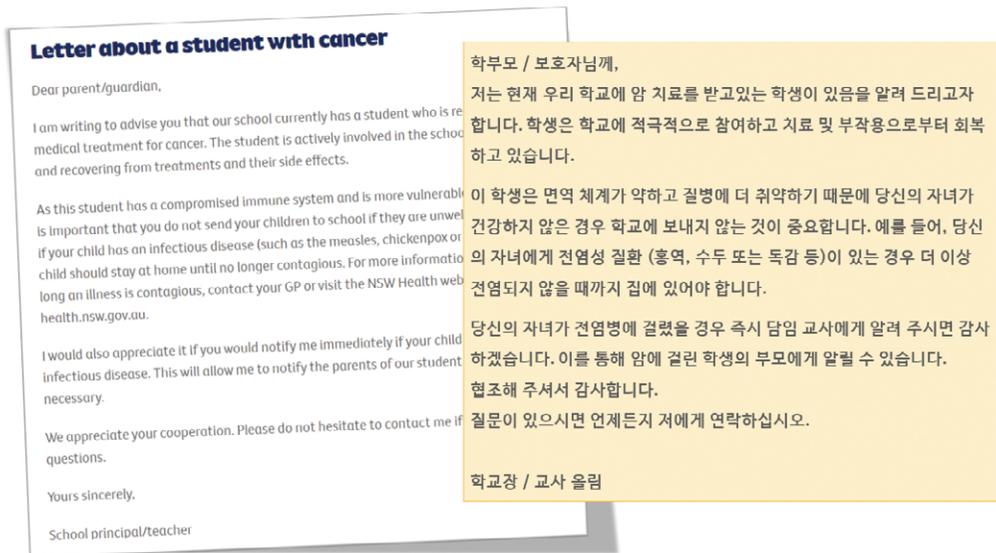
-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도전에 대한 용기 부족
- 질병으로 인한 학업에 대한 동기 부족
- 정서적 문제
- 주위 사람으로부터 관심받기를 갈망
- 화, 분노 조절의 어려움

● 뚜렷한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연락이 없을 때 꼭 먼저 연락하세요.

- 어려우시더라도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 학생에게 관심이 있고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세요.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까 걱정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의 걱정과 관심을 매우 고마워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교환과 같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학생, 가정, 학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 친구들의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 학교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암에 걸렸을 때 교장(교사) 역할의 핵심은 학부모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손상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는 학부모에게 자녀에게 전염병이 있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는 암을 진단받은 학생을 위해 학교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Cancer Council Australia, Cancer in the school community

5.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이끌도록 해주세요.

- 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되면 학생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학생은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주고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건강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 학생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슬퍼하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을 바꾸려고 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원하는 대로 울거나 표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충고보다 공감해주세요.

- 학생이 치료로 힘들었던 상황과 그 어려운 마음을 알고 있다는 표현보다 “정말 어렵게 들리는구나.” 또는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있구나.”와 같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세요.

● 웃음을 즐기세요.

-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은 다른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대화가 건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를 정상성(일정하여 늘 한 걸 같은 것)과 일상성(날마다 반복되는 것)을 위한 기회로 봅니다.

● 다양한 친구를 사귄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 진정한 친구는 부모·형제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끔은 친구가 나를 부모·형제보다 더 이해해줄 수 있다고 느끼고, 말 못 하는 고민과 어려움도 친구에게는 진솔하게 말하며, 친구 덕분에 계획이 생기고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다양한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학급이 짝을 바꾸면 자녀도 짝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자녀가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함께 하는 모둠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학생과 친구들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학교복귀를 위해 학교 친구들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는 힘든 항암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도 학교와 친구를 그리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학교복귀가 가까워져 올수록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소한 친구의 모습에 학교 친구들도 적응이 필요합니다. 학교 친구들이 소아 청소년 암생존자를 이해하게 되면 교실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친구들의 이해는 나이, 성숙도 및 질병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친구의 연령에 맞는 정보를 주는 것은 필수적

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종종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암 경험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오해, 괴롭힘 그리고 고립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용:** 친구들과 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래 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친구들은 이전에 암에 대해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다른 세부 사항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학교 친구들은 암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에 암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 암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암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용:** 친구들과 암에 대해 얘기할 때 아래 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나이의 학생들은 질병 및 부작용과 같은 복잡한 원인 및 결과 관계를 이해합니다.
-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진단의 기초부터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떤 학교 친구들은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친구들은 두려움이나 걱정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를 원할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암에는 다양한 유형과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암은 성인 암과 매우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 이 유형의 암과 치료 방법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치료로 인해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소아청소년암 진단은 가족 구성원에게 많은 신체적,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거나 행동하는 것
 - 힘이 없고 더 지쳐 보임
 - 잦은 결석
 - 이전처럼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
 -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 소아청소년암 진단을 주변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교 친구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 친구들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 담임교사, 보건교사 또는 부모와 같은 성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해주세요.
 - 필요한 학생들에게 추가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해 주세요. 부모도 학교 친구들의 제안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행동 변화, 흥미 상실, 과제를 완료하지 못함, 급격한 성적 변화, 퇴행 등의 징후를 인지해 주세요.

 **학교 친구들 눈높이에 맞는 암 단어를 설명할 때 활용하세요.**

단어	초등학교 저학년용	청소년용
1 림프절	림프절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때로는 세균이 일부 림프절을 부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림프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동그란 알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2 마취제	수술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는 약입니다.	수술 중에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막는 약물입니다. 전신 마취는 누군가를 잠들게 합니다. 국소 마취제는 신체의 한 부분을 마비시킵니다.
3 면역 저하	누군가 매우 쉽게 아플 때	중증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면역 체계의 약화
4 면역 체계	신체 내부의 세균을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그것은 질병과 싸웁니다.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세포 및 기관 네트워크입니다.
5 물리치료사	사람이 아플 때 몸이 강해지도록 돕는 사람	질병과 수술 후 신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 전문가
6 방사선 요법	암세포를 죽이고 암을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체내로 들어가는 엑스레이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광선입니다.	표적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손상시켜 암세포가 성장, 증식 또는 확산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내부를 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을 때와 다릅니다(예 : 다리 부러진 경우).

단어	초등학교 저학년용	청소년용
7 방사선 종양 전문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엑스레이를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고 암을 작게 만드는 특별한 의사	방사선 치료 과정을 처방하고 조정하여 암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
8 백혈병	혈액에서 시작되는 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빠른 속도로 재생산하기 시작하는 암의 일종입니다.
9 부작용	치료 후 피로감이나 탈모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메스꺼움, 탈모 또는 피로와 같은 원치 않는 치료 효과. 이것은 치료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일부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보통 잠시 후에 회복됩니다 (예 :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
10 세포	신체는 세포라고 하는 수십억 개의 작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신체를 작동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는 신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우리의 성장을 돕거나, 닳은 세포를 대체하거나, 부상 후 손상된 세포를 치유합니다.
11 수술	수술하는 의사가 암을 잘라내는 치료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때때로 유방이나 방광과 같은 신체의 큰 부분이 암으로 제거됩니다.
12 암	암은 나쁜 세포가 좋은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나쁜 세포는 덩어리로 성장하여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암은 비정상 세포가 성장하고 빠르게 분열하는 200개가 넘는 질병의 이름입니다. 이 세포는 일반적으로 종양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발전합니다. 암은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13 양성	위험하지 않은 신체의 혹 또는 덩어리입니다.	암이나 악성이 아닙니다. 양성 종양은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없습니다.
14 엑스레이	신체 내부 사진을 찍는 검사입니다.	X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15 의료 종양 전문의	강력한 약을 사용하여 암 환자를 치료하는 특수 의사	화학 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

단어		초등학교 저학년용	청소년용
16	전이	나쁜 세포가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	암이 신체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퍼졌을 때, 이차암 이라고도 합니다.
17	조직 검사	의사가 신체의 세포가 건강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암을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의사는 몸에서 작은 조직 조각을 꺼내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세포가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18	종양	거기에 있으면 안되는 몸의 덩어리. 덩어리는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며 전이되는 종기나 상처를 말합니다.
19	진단	의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	누군가가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
20	초음파 검사	의사가 신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여 문제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음파를 사용하여 신체 일부의 사진을 만드는 스캔입니다. 종양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21	표적 치료	암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죽이지만 건강한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치료입니다.	특정한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시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치료입니다.
22	혈구 검사	혈액이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체 혈구의 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검사입니다.	혈액에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이 몇 개인지 세는 검사입니다.
23	호르몬 요법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치료입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신체의 천연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입니다. 암이 호르몬에 반응하여 자라고 있을 때 사용됩니다.
24	화학 요법	나쁜 암세포를 죽이는 특수 치료입니다.	약물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늦추는 암 치료입니다.
25	MRI 검사	사람의 신체 내부를 사진으로 찍는 방법입니다.	자기와 전파를 사용하여 신체의 상세한 단면 사진을 찍는 의료 스캔입니다. MRI는 "자기 공명 영상"을 의미합니다.

출처: Cancer Council Australia, Cancer in the school community

7. 학교 친구들이 자주하는 질문

질문		답변
1	암은 전염되나요?	아닙니다. 암은 전염되지 않아 함께 학교생활해도 괜찮아요.
2	왜 머리카락이 빠지나요?	화학 요법이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3	친구와 놀아도 되나요?	그것은 친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일느냐에 달려 있으니, 학교에 오면 친구에게 물어봐요.
4	병원에 찾아가도 되나요?	부모님에게 병원에 찾아가도 되는지 물어봐요.
5	이 사실에 대해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도 되나요?	친구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며 그 친구를 존중해주세요.
6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친구를 지지해주세요. 친구의 사생활과 가능성을 존중해주세요.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보세요.
7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과제를 돕고, 놓친 메모를 공유하고, 오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8	친구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도와줄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보다는 "친구야, ~ 해도 괜찮을까?" 또는 "00가 가방이 무거워지면 들어줄까?"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9	암으로 죽을 수도 있나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소아청소년암을 치료받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아청소년암을 치료받는 친구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처: Cancer Council Australia, ALSF School guide: Supporting Families and Classmates Affected by Childhood Cancer.

VI. 상황별 대처방법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편]

상황 1 치료로 인해 생긴 내 몸의 변화를 모르고 있을 때

[저학년용]



8살 건강이는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지만, 치료 이후에 다시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치료가 끝난 뒤 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금방 피곤해지고 다리가 아파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고 열심히 뛰었는데 숨이 차서 더 이상 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앉아서 잠시 쉬었더니 금방 나아졌어요.



치료 후 내가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땀 힘든지 즉, 치료로 인해 나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어야 학교에서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앞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고학년용]

치료 이후에 내 몸이 변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암 치료의 후유증으로는 탈모, 면역력 저하,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호흡 저하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격한 운동을 하면 숨이 많이 찰 수도 있고, 오랫동안 활동하면 쉽게 피곤해지는 경향도 있답니다. 치료 이후에 내 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있어야 학교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치료로 인해 생긴 내 몸의 변화를 알고 무리하지 않는다면 더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상황 2 내가 아팠던 것을 친구들이 아는 것이 싫을 때

[저학년용]



건강이는 혼자 간직하고 있던 비밀, 건강이가 아팠던 사실을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건강이가 힘들 때 함께 고민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일 거라는 생각에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후로 친구는 암이 옮으면 어떻게 하나며 건강이를 멀리했고, 계속 ‘아픈 애’라고 부르며 놀렸어요. 치료가 끝난 뒤 건강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는데, 계속 ‘아픈 애’라고 부르니 너무 속상했어요. 암은 옮지 않을 뿐더러 건강이는 암과 싸워 이겨냈는데 함께 놀아주지 않는 것도 슬펐어요. 그래서 다시는 친구에게 아팠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다른 친구가 건강이가 아팠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이는 이번에도 친구가 놀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건강이에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위로해주며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었어요. 건강이는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친구에게 알려주고 친구는 나를 이해해주었어요.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니 친구와 더 가까워진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아팠던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나쁜 상황이 걱정되어 내가 아팠던 것을 친구들이 아는 것이 싫은 것은 당연한 감정이예요. 이 문제가 많이 고민이 된다면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 병원의 사회복지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학년용]

내가 아팠던 것을 친구들이 아는 것이 싫은 것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나의 암 병력이 알려진 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수 있어요. 내가 아팠던 것을 알게 된 후 나를 다르게 대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팠던 것과 상관없이 나를 똑같이 대해 주거나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팠던 것을 친구들이 아는 것이 싫다면, 친구들이 내가 아팠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민하며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나를 놀리거나, 편견을 갖고 바라보며 피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팠던 사실과 암에 대해 친구들이 더 잘 알게 된다면 친구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할 땐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팠던 사실을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 좋을지, 알리지 않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 나의 결정에 맞게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과 같은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어요.

상황 3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건강이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던 중, 조금씩 어지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곧 괜찮아 지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수업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건강이는 점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어요.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코피가 나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건강이가 응급상황에 놓였을 때 연락하기로 한 비상 연락처(부모님)로 바로 연락하였고, 부모님은 건강이의 증상을 듣고 119로 연락해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건강이는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보건실에서 안정을 취했어요.



건강이처럼 학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증상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의료진, 학교복귀 지원 프로그램 선생님, 부모님과 상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상황 1 자녀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일을 모르고 있을 때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크게 신체적 건강과 심리·정서적 건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치료가 끝나고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암생존자통합지지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영양 관리, 심리지지, 운동 등 다양한 건강관리 방법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상황 2 학교 친구들이 자녀의 병에 대해 아는 것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학교 친구들에게 자녀의 병에 대해 알리는 것의 여부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는 병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거나, 병을 알리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러한 생각을 잘 공감해주고 병에 대해 알렸을 때, 그리고 알리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비교하며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에 대해 알렸을 때 예상되는 친구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할지 자녀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복귀 초기, 자녀는 학교생활을 하며 체육수업에 당장 참여하기 힘들거나 다른 친구들보다 휴식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장실 이용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학교 급식을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병에 대해 알려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자녀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면 자녀만 특별하게 대해준다고 불만을 갖거나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본 뒤 주치의, 교사 등과 상의하여 결정한다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3 자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 때

자주는 아니더라도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시 증상별 대처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과 미리 상의하여 대처법을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응급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생긴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 있고,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담임교사와 보건 교사에게 자녀의 응급상황 시 대처법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응급 연락처를 2개 이상 제공하여 바로 연락 및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 4 학교복귀 하기 전, 자녀와 함께 학교 방문 계획이 없을 때

건강이와 부모님처럼 자녀가 학교에 복귀하기 전 함께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가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만, 자녀와 함께 학교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만 미리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자녀가 생활하게 될 학교 시설들의 사진을 찍어서 자녀와 함께 사진을 보고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 미리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담임 선생님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학교에 익숙해지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복귀를 앞두고 있는 건강이는 학교생활이 설레었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가는 거라 학교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건강이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학교에 함께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학교에 미리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담임 선생님께서는 건강이의 교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안내를 해주시겠다고 흔쾌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건강이와 부모님은 건강이가 공부하게 될 교실과 급식실, 체육관, 보건실, 화장실 등을 미리 확인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둘러보았습니다. 교실과 화장실은 가까워서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지만, 체육관은 다른 층에 있어 이동하는 데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와 부모님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예상되는 어려움을 미리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학교를 방문해보니 낯설거나 어색함이 많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상황 1 학생의 건강에 대해 주의할 점을 모를 때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 저하, 피로감과 같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우울함, 자존감이 저하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어려움들은 점차 감소합니다. 학생이 치료 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과 학교에 적응하는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학생의 건강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정보 부족과 생소한 의학적 정보로 인해 막막함이 느껴질 때는 부모 또는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확인하고, 부모와 이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과도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2 학생의 학업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해 모를 때

소아청소년암 치료 종료 후 학생은 피로감을 쉽게 느끼거나 운동 기능 장애, 청력 감퇴 등의 문제가 있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수행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미리 학생, 부모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암 치료를 마친 건강이가 학교에 복귀하고 첫 6개월 동안 담임 선생님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쉽게 피곤해지고 체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피곤해지니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수업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체력 저하로 인해 체육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건강이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건강이가 신체적, 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게 학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상의해 보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건강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건강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 건강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앞으로도 건강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상황 3 학교복귀 하는 학생의 친한 친구가 누군지 모를 때

모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친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학교에서 형성되는 또래 집단을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복귀를 하는 학생 또한 친한 친구의 존재 여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다면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며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학업 능력 증가, 자존감 증진, 사회화와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또래 집단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특별히 더 친한 친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며, 학생의 학교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4 학교복귀 하는 학생과 등하교를 같이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는지 알지 못할 때

등하교를 같이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친구와 등하교를 같이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학생의 마음이 든든해질 거예요. 학생과 등하교를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른다면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물어보거나, 부모님에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하교를 같이 하는 동네 친구가 없다면 학생에게 집의 방향이 같거나 마음이 맞는 친구에게 등하교를 함께 하는 것을 제안해보도록 이야기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학생의 성향에 따라 혼자 등하교를 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학생의 의견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5 학교 시설에 대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모를 때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암 치료가 끝난 초기에는 학생이 신체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학교 시설 사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이의 담임 선생님은 등교 전 학교에 방문한 부모님, 건강이와 학교를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이가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선생님에게 보여주며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 체크리스트

- 교실에 사물함 배치하기: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기 힘들 수 있어, 교실 내 사물함을 배치하여 교과서를 학교와 집 모두에 두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화장실 위치와 이용 시간: 교실에서 화장실까지 이동 거리 무리 없다고 함. 혹시 컨디션이 저하 되어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나 빈뇨 증상이 있을 시, 필요할 때마다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설명함
- 체육관: 교실에서 체육관까지 거리가 있어 이동 시 힘들 것 같다고 함. 첫 한 달은 쉬는 시간 시작 10분 전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이의 건강상태를 보고 점차 조율해 나가기로 함
- 보건실: 건강이가 필요할 때 보건실에 갈 수 있도록 건강이에게 보건실 위치를 알려주었음. 보건실까지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 없다고 하였으며, 보건 교사에게 건강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의학적 상황을 미리 알려주기로 함. 부모님도 직접 보건 교사와 미리 연락하여 건강이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논해 보기로 함
- 급식실: 건강이와 함께 교실부터 급식실까지 이동해보았음. 급식실 내부에 있는 개수대에서 식사 전 손을 꼭 씻을 수 있도록 설명하였음. 별도 도시락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영양사에게 따로 공지할 사항은 없는 것을 확인함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선생님은 건강이가 학교에 복귀한 후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 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건강이와 부모님,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막막함은 사라지고, 건강이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 6 학생이 학교복귀 하기 전, 부모와 학생의 학교 방문 계획이 없을 때

학생이 학교복귀를 하기 전, 부모와 학생을 직접 만나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 복귀에 대한 기대 수준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병력과 치료력, 생활 습관, 학습 상태 등을 파악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학생이 학교복귀 후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학생과 함께 학교 시설을 둘러보면서, 학교생활을 하며 예상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두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학교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동선을 확인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면이나 전화, 비대면 등으로 학교 복귀 계획과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통화로 부모와 학생에게 학교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Ⅶ. 부록

④ 학교복귀 준비할 때 병원학교 교사와 함께 점검해 보기

문항	점검사항	
1	교과학습 수행 정도가 현재 학년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병원학교 퇴교 처리 결정 시 담당 주치의 의견을 반영하였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병원학교 퇴교 처리 결정 시 학생의 건강상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였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학생이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모두 참여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학생이해를 위해 원격학교 담임교사와 소통을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원격학교 담임 교사에게 학생이해자료(건강, 친구관계, 학습, 주의할 점 등)를 제공할 계획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때 원격학교 교사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④ 치료 후 건강 수칙 10가지

1	바르게 먹기
2	꾸준히 운동하기
3	건강 체중 유지하기
4	절대로 흡연하지 말고 간접 흡연도 피하기
5	과도한 음주를 피하기
6	건강한 치아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 지키기
8	건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하기
9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기
10	건강한 성생활 하기

출처: 소아청소년 암 치료 후 건강관리법, 박경덕 외 3명, 2014

☞ 참고 도서 및 영상물

- 참고자료로는 웹사이트, 도서, 영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번호	구분	자료명칭	내용 및 출처
1	영화	안녕, 헤이즐	암에 걸린 16세 헤이즐(주인공)이 암환자 지원 단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10대의 감동적인 로맨스 영화
2	영화	완전 소중한 사람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의 씩씩한 삶을 응원하는 영화
3	도서	다시 만나 반가워!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학교복귀 지침서 -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의료정책위원회
4	도서	소아암 알면 완치할 수 있다	- 소아뇌종양 환자의 투병일기 - 김태형, 나영신, 이미정 지음
5	도서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아이들의 사랑과 희망을 위해 주인공 한솔이의 20일간의 국토종단 이야기 - 박경태 지음
6	도서	나의 겨울이야기 - 감기처럼 옮기진 않지만 나도 감기처럼 아픈 적 있어	- 소아암 완치자의 애환이 깃든 경험담을 바탕으로 창작된 동화로,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있는 응원서 - 너나들이 지음
7	도서	소아청소년 암 치료 후 건강관리법	박경덕, 박현진, 박미림, 김혜리 지음
8	도서	소아암 완치자를 위한 12가지 심리제안	- 소아암 완치자가 일상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생생한 조언이 담겨있는 지침서 - 김의연 지음
9	소책자	소아암 학생 지도 가이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10	웹사이트	소아암, 공포의 불치병 아닌 이유 세 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KkZqpm4hl04
11	웹사이트	소아암 인식개선 1탄 세계소아암의 날 맞이	https://www.youtube.com/watch?v=fY9mSivCCbQ
12	웹사이트	소아암 인식개선 2탄 우리 아이 혹시 소아암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Y0AQJZGtD9w
13	웹사이트	소아암 인식개선 3탄 소아암 예방할 수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b8jw7DXsl4U&t=10s
14	웹사이트	소아암 인식개선 4탄 소아암 치료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uBZEGvALsWs
15	웹사이트	“어느 병원 다녀?” 소아암 환아를 만난 9살이 하는 말 ODG	https://www.youtube.com/watch?v=tWatiCnuK0U

🖥️ 관련 기관 및 사이트

번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1	국가암정보센터 (암생존자 통합지지)	https://www.cancer.go.kr/lay1/S1T786C785/contents.do
2	꿈사랑학교	https://www.nanura.org
3	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4	위(wee)센터	http://www.wee.go.kr/home/main.php
5	전국병원학교	https://hospital.s4u.kr/main.do
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https://www.cyber1388.kr:447/new_/sub05_1.asp
7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https://www.kclf.org
8	한국소아암재단	http://www.angelc.or.kr
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userSite/index.asp
10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https://soaam.or.kr/
11	한국혈액암협회	https://www.kbdca.or.kr/index.php/
12	한국소아암부모회	https://cafe.daum.net/kfccpo

VIII. 출처

건강장애학생지원 가이드북, 2019.

고도현, 유금란, 소아암 환자 형제자매에 대한 심리지원: 문헌고찰을 통한 제언, 재활심리연구, 2019.

김순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소아청소년암, 범문에듀케이션, 2017.

대전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16.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소아청소년암 경험자 학교복귀 지침서 다시 만나 반가워!, 2016.

세브란스병원학교, 성공적인 학교복귀와 적응을 위한 교사의 준비, 2012.

세브란스병원학교, 성공적인 학교복귀와 적응을 위한 부모의 준비, 2012.

아동행복찾기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2017.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아암 학생 지도 가이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럴땐 이렇게, 2015.

ASKCCF, Educational toolkit(hospital), 2019.

ASKCCF, Educational toolkit(school), 2019.

ALSF School guide: Supporting Families and Classmates Affected by Childhood Cancer.

ALSF Childhood Cancer Survivors: A Practical Guide to Your Future, 3rd ed. 2012.

CLIC Sargent, Cancer and school life, 2017.

CCLG, Supporting brothers and sisters, 2021.

CCLG, Welcome back!, 2015.

Cancer Council Australia, Cancer in the school community: A guide for staff members, 2018.

Cancer Council Australia, Talking to kids about cancer: A guid for people with cancer, their families and friends, 2018.

Child cancer foundation, Back to school for students with cancer: Guidelines for teachers.

Children's Hospital London Health Sciences Centre, helping schools cope with childhood cancer, 2011.

Cynthia S, Henry and Kim Gosselin, Taking cancer to school, JayJo Books, 2001.

Hentinen, M., Kyngaes, H.,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daptation of parents with a chronically ill child,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998.

Van Dongen-Melman J.E., Groot A. De, Halen K., Verhulst F. C., Siblings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How does this 'Forgotten' group of children adjust after cessation of successful cancer treatment?, European Journal of cancer, 1995.

KidsHealth, <https://kidshealth.org.nz/?language=zh-hans>, 2022.
